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료 보급 눈길

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전남도와 협업...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

올해 2천 8백여대 보급에 이어 내년에도 3천 9백대 무료 보급 계획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주성)가 전라남도(함평군)와 협업을 통해 올해 한해 2천 8백여대의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무료 보급했다.

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전남 거주 장애인 등록차량은 약 3만대에 이르지만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장착한 차량은 9천 4백여대로 약 32%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시 보다 편리한 하이패스 이용을 위해 무료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천 7백여대를 무료 보급하였고 올해 2천 8백여대 보급에 이어 내년에도 3천 9백대를 보급할 예정에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료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무료 보급 감면단말기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내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

서(구비서류 : 통합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만 작성하면 단말기는 택배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고, 각 지자체 동(면)사무소 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여 지문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감면 단말기 등록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 지자체 및 장애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장애인복지관 등 지정된 장소에서 현장접수 후 단말기 발급과 지문 등록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 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장애인용 감면 단말기 보급 확대를 계기로 하이패스 이용률이 향상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등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당=박종영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 시각장애인에 '사랑나눔 선물 박스' 전달

현대백화점면세점은 26일 '하트-하트재단'을 통해 '사랑나눔 선물 박스'를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선물 박스는 시각장애인용 도서와 방한용품, 학습을 위한 블루투스 스피커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자·촉각·음성 기능 책이 담겼다.

선물 박스는 시각장애학교 저소득 가정 학생 15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기는

국립현대미술관 '광장'전

최초로 시각장애인용 음성해설 개발

국립현대미술관(MMCA, 관장 윤범모)은 오는 2020년 2월9일까지 덕수궁관, 과천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50주년 기념전 '광장: 미술과 사회 1900-2019'와 연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품 감상 보조 자료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보조자료로는 각 관별 '광장' 1, 2, 3부 전시 소개와 전시장 지도, 주요 출품작 설명이 점자와 큰 활자, 촉각 인쇄물, 시각장애인에게 특화된 음성해설로 제작돼 제공된다.

특히 이번 시각장애인용 음성해설은 국내 미술관 전시 관람을 위해 최초로 개발됐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미디어접근센터 시각장애인 화면해설 방송작가 15명이 개발에 참여했다.

“장애인 말 못한다고 인감증명 발급 거부시 차별”

주민센터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며 인감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뇌병변장애 등 장애유형과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인에게 인감증명 발급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사무편람)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뇌병변장애인 A씨는 지난 6월 활동지원사와 함께 주민센터에 방문해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주민센터 담당자는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인권위가 A씨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A씨는 말과 필기로는 의사소통이 어렵지만 주먹을 쥐고

손을 세우는 몸짓으로는 '맞다' '아니다'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 힘이 들긴 하지만 '예' '아니오'를 짧게 대답할 수 있다.

정부의 사무편람 규정을 보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표시 가능한 사람'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봤다. 의사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 이 인감증명서로 행해진 행정행위 등이 무효가 되어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구술과 필기가 안되는 경우라도 본인의사 표현여부가 확인된다면 발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의사소견서 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 사업

무안군 청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백홍상, 서명호)는 따뜻한 겨울나기 대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18세대에 보일러를 교체하고 연탄 및 난방유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지난 10일 연탄으로 난방 생활을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인 채 모 씨(80세)에게 연탄 582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장애인 세대인 류 모 씨(49세)와 독거노인세대인 양 모 씨(90세)의 태에 20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는 보일러를 교체하고 난방유를 배달했다.



서명호 청계면 지역사회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외롭고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으며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청계면 협의체는 지난 11월 8일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랑더하기 행복나누기' 모금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지원발굴에 힘쓰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아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아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Together 광산구